

2017년 12월 27일, 한림읍 강구리 강구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  
양신생(여, 1941년생 한림읍 강구리)

- 줄거리: 효자의 아버지가 유언으로 팔각이족한 땅에 묻어달라고 하여 팔각이족한 땅을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 없었다. 14일이 되던 날, 말에 말똥을 실어서 가는 사람을 만나 사연을 말하니 그 사람이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팔각이족한 땅이라고 하였다. 그래서 그곳에 아버지를 묻었다.

**[제보자]** 어느 효자가 아버지가 죽으난, 아버지가 돌아가난 유언 허난

“나는 죽거든 팔각이족헌 땅에 묻어달라.”

팔각이족헌 땅에.

**[조사자]** 팔각이족헌 땅이 뭐꽈?

**[제보자]** 아. 게난 이 말을 골으믄 끝에 나오지. 팔각이족헌 땅에 묻어달라고 아버지가 유언을 허니깐 그 효자 자식은 두일례 십사일 다 돌아다녀도 팔각이족헌 땅을 못 찾은 거라. 못찾으고 십사일 뒤는 날은 막이 산에 이레 돌아다니단 보난 어떤 사람이 말에 옛날엔 그 말똥도 그 불 떼고 뭐 허니깐 그걸 말에 죽언 말에 싱그는 사람 잇언. 그 사람이

“웨 이렇게 돌아다니느냐?”

허니깐

“다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허기를, 돌아가시믄 팔각이족헌 땅에 묻어달라고 해서 팔각이족헌 땅을 두일례 열나흘 십사일을 돌아다녀도 못찾았다.”

영 허난, 그 말 실르는 사람이 뭐라고 헛는고 허면은

“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팔각이족헌 땅이다. 웬냐? 팔다리 두, 사람 팔다리 넷, 말 다리가 넷 허니깐 팔각, 이족은 말 하나, 사람 하나. 이것이 팔각이족헌 땅이다.”

경 허연, 그 아덜이 그 팔각이족헌 땅에 아버지 돌아가신 두일례 열나흘 십사일만에 장사지냈던 헌 말. 나는 이거 옛날 들은 말 우리 친정아부지 막 나이 드신 분이난, 이런 말도 골안 듣고.

- 핵심어: 효자, 아버지, 죽음, 장례, 팔각이족, 말, 산, 땅, 유언